

학기술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후변화부터 환경오염, 핵폐기물, 생태계 파괴, 과학윤리 등등 온갖 골치덩이들이 21세기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21세기 세대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오랜 기간 애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나 미세플라스틱만 해도 이미 일상적으로 우리의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기적 과학기술은 세기적 윤리 문제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21세기는 성찰이 있는 과학기술의 시대여야 합니다. 튜베리를 비롯한 21세기 세대들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들이 내놓는 SF스토리텔링에는 바로 그런 성찰이 배어 있습니다. 21세기 세대는 급격한 과학기술의 변화라는 환경을 태어날 때부터 마치 숨 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성장한 인류 역사상 첫 세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은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면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들까지도 잘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21세기 세대를 과소평가할 게 아니라 이들이 내놓는 새로운 세계관이나 철학에 적극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진재SF어워드야말로 바로 그런 목소리들을 낼 수 있는 훌륭한 창구입니다. 이 책자에 실린 작품들의 주제를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젊은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선보이리라 믿습니다. 21세기는 신세대들의 시대입니다.

심사위원 박상준

SF 및 교양과학 전문 기획번역가, 칼럼니스트, 강연자
 <SF 거장과 결작의 연대기>(공저), <화씨451>(번역) 등 저서 발간
 SF전문출판 '오멜라스' 대표, 장르문학 전문지 '판타스틱'의 초대 편집장 역임
 (현) 한국SF협회 회장
 (현) 서울SF아카이브 대표

2020년 새로운 우주와 낯선 지구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해보자.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누구이며, 가장 책을 많이 보관하는 곳은 어디며, 그리고 누가 그렇게 많은 책을 만드는가? 독자(소비자), 소통(중개자), 작가(생산자)로 간추리면, 아마도 먼저 대학교수와 도서관 그리고 인기 작가를 떠올릴 것이다. 얼핏 맞는 것 같지만, 지식의 전문성, 장소의 공공성과 대중의 상업성이라는 관계를 빼버린다면, 그렇지 않다. 한마디로 이러한 외형은 중요하지 않다. 해서 여기서 관점을 달리하고 싶은 것은 글자를 읽고 이해할 줄 알면서부터 시작하는 읽기의 단계와 유형, 개인적인 독서의 유용성이다. 동시에 이러한 독서의 생산자는 누구인가, 또한 그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쓰는가? 라는 물음도 독자로서는 피할 수 없기에 ...

'수용미학'의 저자 볼프강 이저의 글을 빌리면, 독자의 층위와 잠재적 수준은 반드시 독서의 양이나 효용성에 의해 가능될 수 없다. 그리고 독자는 왜,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가? 역설적으로 늘 독서 나아가 문화의 소비자나 이용자로만 남을 것인가, 남고 싶은가? 그렇지 않다. 읽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작가나 지식을 생산하는 자가 될 수 없듯이, 독서의 잠재력은 바로 소통과 문화의 생산성에 맞닿아 있다. 인터넷과 함께 이젠 스마트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보나 문화의 상호소통과 동시성이 확보되었다. 이젠 누구나 문화의 소비자이자 생산자 그리고 유통자가 될 수 있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러한 세가지 역할이 함께 뒤섞이는 자신만의 창조적 행위는 무엇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어떻게 정의되는가에 따라 가치를 달리한다.

흔히들 요즘은 책이나 글을 읽지 않는 세대라고 걱정하지만, 따지고 보면 오늘날 독서는 반드시 문자만을 전제할 수 없다. 소리, 몸짓, 선과 색채 하물며 기호나 부호, 이모티콘도 소통의 수단이 되어버린 절대언어의 시대에 우린 살고 있다. 이미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공유되고 즐기는 현상을 너머 문화가 되었다. 그렇다면,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차원의 독서를 진작시키고, 미래를 대비하게끔 하는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을까! 독자이면서 작가, 문화의 소비자이면서 중개자, 창조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시작해보자. 다른 사람에 비해 앞서면서 보다 나은 생각, 엉뚱한 발상, 진지함과 열정 또한 이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최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컨셉으로 <김진재 SF 어워드>는 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목적은 미래를 이끌 창조적 인재 발굴과 양성이다.

이로부터 어느덧 올해 4년 째를 맞는다. 그간 2회(2018, 2019)에 걸쳐 <김진재 SF 어워드> 행사를 개최했으며, 또 지난해(2019)는 처음으로 <과학독서 아카데미> 문화사업도 시작했다. 둘은 상호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의 젊은이들이 미래에 펼칠 무한한 가능성 제고라는 점에서는 지향점이 같지만, 방법을 달리할 뿐이다. 이를 위해 김세연 국회의원과 전호환 부산대 총장이 선대의 고(故) 김진재 의원의 유지를 받드는 데 있어 전적으로 공감했기에 이러한 사업이 가능했다.

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실체는 바로 DRB와 부산대 도서관이다. 향토기업이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사업 그리고 대학이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이 단단하게 맞물려 있다. 구체적으로는 '무엇 what'과 '방법 how'이 실천방안의 핵심이다. 이를 위한 주제는 SF(인문/예술/환경/기후/과학/기술/우주/의학/생명 등)로 정해졌으며, 잠재력이 풍부한 청소년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과정에 있어 적절한 기회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이 이에 대한 호응이다. 엘리엇 페

퍼가 "SF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밝혔듯이, 새로운 낯설음을 창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운영위원으로서 그동안 행사 진행을 살펴보고, 응모된 작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은 이러한 기대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간추리면, 21세기 '새로운 서사성' 확보를 꾀하는 데 있어 참가자의 열기는 물론 나름 의미있는 노력들이 돋보였다. 그 이유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예측가능하게 만드는 전혀 엉뚱한 발상과 창의성이다. 일반적인 사고나 가치관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참가자와 응모자들이 잠재적 능력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즉 누구나 할 수 있는, 실패나 잘못도 따지지 않는, 창조성과 잠재성을 키우는 열린 기회 역시 자신의 선택이자 몫이었다. 미래를 능동적으로 대체하는 잠재력은 기존의 기준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가능하는 잣대는 지식이나 독서의 양이 아니라, 상상력이다. 다만 열정의 다름과 성실함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심사위원 **이상근**

비평전문 계간지 <오늘의문예비평> 동인 및 편집인
독일문예학/독일발트문학 연구와 관련 논문과 저서 발간
부산대학교 도서관장 역임
(현)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현) 라트비아대학 연구교수